박 현 정

Front - End 개발자

UI/UX Publisher / Designer (신입)

https://summerendless.github.io/portfolio/



생년월일 1991.09.09

휴대전화 010-4284-0909

이메일 w19910909@gmail.com

주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 3 동 신목동 아파트 203 동 1507 호

업무적 강점

- 웹표준에 대한 견고한 이해
 - 웹 사이트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 협업 경험 있음
 - Html5, css3 를 기준으로 javascript, jquery 등 언어의 장벽이 없음

기술 요약

- Github 시스템 사용 가능
- 그누보드 5, wordpress, bootstrap 사용법 훈련경험 있음

학력 사항

2010. 03 - 2015. 02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졸업(학사)

2007. 03 - 2010. 02

금옥여자고등학교

졸업(서울)

교육 및 대외활동

관련활동 및 사회경험

활동명: Women Techmakers Seoul 2019

○ 기관/장소: Women Techmakers / 서울 코엑스

○ 활동기간: 2019.04.13

○ 내용: 테크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프로그래머를 위한 내용은 물론 디자이너 또는 QA, PO 등 타 직군에게도 임파워링 되는 컨퍼런스

교육

○ 교육명 : 스마트컨텐츠 UI/UX 퍼블리싱

교육기관: 한국직업전문학교

○ 활동기간: 2018.10.08 - 2019.02.14

○ 내용: 웹표준, 웹접근성에 기반한 UI/UX 디자인 및 퍼블리싱

o 교육명 : General English

교육기관 : ATC language school in Ireland

활동기간: 2015.08.27 - 2016.03.18

○ 내용 : General English

기타

○ [외국어_영어] : 오픽 AL level (취득일:2019.04)

○ [자격증]: 사회복지사 1 급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2 급 (한국보육진흥원) 취득일: 2015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매사 분석적인 사고 방식과 독립심으로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을 고안해내며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법을 배웠으며 이러한 경험 덕분에 웹 퍼블리셔 라는 직무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빠르게 하나하나 순서를 지켜 해결해 나가는 스릴을 즐길 줄 알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정에 남다른 밸런스 감각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맞벌이로 바쁘신 상황에서 스스로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험들은 저를 무척이나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이 저의 존재를 인지하고, 사랑하며, 인식해줄 때마다, 소속감을 느끼곤했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의 친화력이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롯이 친화력 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상대를 배려하며, 함께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세로 반목을 해소하고, 더욱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귀사에서 보다 유연한 업무 체계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마음의 눈으로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며 업무 할 수 있는 웹퍼블리셔가 되고 싶었습니다.

[경력사항]

- 1. 교육 기간 동안 설계서와 디자인이 따로 준비되어있지 않아 사이트 리뉴얼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을 마친 후 사이트 리뉴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 2. 디자인을 코드로 나타내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구조화시킬 것인지, 어떻게 동작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생각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 3. 다양한 사이트들을 돌아보며 차이점을 구별해내려 노력했습니다.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저는 다방면의 업무에 동시다발적으로 몰두하는 멀티플레이어 입니다. 다양한 가치와 관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현대에서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맞춰내겠다는 믿음으로, 스스로의 멀티플레이어 능력을 더욱 가다듬어 가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사용자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뜻과 의욕에 의해 귀사 입사지원에 이끌렸고, 제 능력과 꿈을 크게 지니며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웹 개발자로서, 퍼블리셔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보고, 학습하고, 익히는 연습을 해야 하고, 업무를 다른 동료들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 보다 원활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를 통해 같은 교육동기들과 시간을 내어 만나며 역량을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귀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많은 변화의 흐름들 속에서 진정 중요한 흐름을 찾아 타고 갈 수 있는 인재로써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서 상의 모든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04월 18일 박현정